

“코리아컵 우승·리그 3위 이상 ‘두 토끼’ 잡겠다”

‘부상 복귀’ 광주FC 골키퍼 김경민 “모든 경기에 최선” 안와골절 한 달 만에 코리아컵 울산전 뛰며 4강행 견인

부상에서 돌아온 광주FC 수문장 김경민이 목표 달성을 위해 ‘오늘’에 집중한다. 김경민은 지난 6월 1일 대구FC와의 경기에서 큰 부상을 당했다. 수비 도중 대구 에드거와 충돌한 김경민은 병원 검진 결과 안와골절 진단을 받으면서 한동안 그라운드를 떠나있었다.

그리고 지난 2일 울산HD와의 코리아컵 8강전을 통해 김경민이 부상 복귀전을 치렀다. 이 경기에서 광주는 조성권의 헤더로 1-0 승리를 거두고 4강행을 확정했다. 이후 A매치 휴식기를 보낸 광주는 18일 수원FC와의 원정경기를 통해 다시 승점 사냥에 나선다.

‘코리아컵 우승’과 ‘리그 3위 이상’이라는 목표를 위해 김경민은 든든하게 광주 골대를 지키고, 수비진을 움직여야 한다.

김경민은 “부상 당시에 공을 막는 상황이고 경합 상황이나 어쩔 수 없었는데 많이 아팠다. 웬만하면 일어나서 하는 스타일인데 너무 아팠다. 무엇보다 시야가 흐려져서 피해가 되겠다 싶었다”며 “복귀전에서 공에 집중하니까 큰 문제는 없었는데 훈련할 때 움직일 경우가 있기는 하다. 아직 편이 고정된 상황이라서 눈이 잘 안 떠지지만 경기에는 지장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코리아컵에서 승리는 지켰지만 만족할 만한 복귀전은 아니었다는 게 김경민의 설명이다. 그만큼 앞선 A매치 휴식기가 김경민과 광주에는 귀중한 시간이 됐다.

김경민은 “생각보다 복귀가 빨랐다. 욕심이 있어서 더 빨리 복귀를 했다. 생각보다 몸은 괜찮았는데 컵 경기를 뛰니까 힘이 드는 게 느껴졌다”며 “결과도 결과지만 다음 경기에 영향이 있으니까 과정이 중요하다. 결과는 좋았지만 과정에서는 많이 아쉬웠다”고 부상 복귀전을 평가했다.

A매치 기간 힘을 붙인 김경민은 ‘순간 판단’을 위한 훈련도 많이 했다.

김경민은 “빌드업을 하다가 리스크 부분이 많이 생기는 플레이를 한다. 빌드업을 할지 위험 상황인지 판단하는 훈련을 많이 했다”며 “공부도 많이 한다. 동료들이 축구적으로 지식이 좋아져서 요구하는 게 많아졌다. ‘더 잡고 있어줘도 돼, 이 쪽으로 줘도 돼’ 이런 부분을 선수들이 요구한다. 정제돼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노력을 하게 된다”고 웃었다.

부상으로 쉬어가는 동안 김경민은 관람자로 광주를 지켜봤다. 그라운드 밖에서 본 후배 골키퍼들의 플레이와 광주 경기를 통해 김경민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김경민은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다. 잘하고 싶고, 욕심도 있고, 몸도 좋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좋은 멘탈, 평정심, 차분함이 있어야 한다. 나도 그 나이 때 그런 게 부족했다. 골을 먹는 것도 경험이다. 골을 많이 먹었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성장의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봤다”고 후배 골키퍼들의 경기를 이야기했다.

또 “꾸준히 발전해 가고 있는 팀이라는 걸 느꼈다. 누가 들어오고 나가든 그 플레이를 할 수 있다. 고맙게 생각하는 게 뛰는 선수도 없고 응집력을 가지고 쏘으려고 하는 모습이 좋았던 것 같다. 그게 광주 컬러고 매력이다”라고 광주를 말했다.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서는 광주, 일단 수원FC와의 원정경기가 중요하다.

김경민은 “안드레손이 이적하고 이적생 효과가 있는 상황에서 수원FC와 매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경기고 실력을 시작하는 경기다. 상대팀들이 좋은 선수들이 들어왔으니까 해법을 찾고 훈련을 통해 방법을 찾고 도전하는 게 광주 컬러고 속제다”며 “내가 보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도 보면서 경기하겠다. 선수들이 한쪽을 정해 놓고 공을 주는데 주위를 많이 살피고, 반대로 주기도 하면서 상대 속일 수 있는 연결을 하겠다. 동료들이 편하게 공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코리아컵에 대해서는 노파심을 이야기했다. ‘우승 후보’ 울산을 넘었기 때문에 ‘우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승보다 중요한 게 부천FC와의 준결승전이다.

김경민은 “많은 분께서 결승을 먼저 이야기하시는 데 불안하다. 중요한 것은 4강 부천전이다. 저력 있는 팀이고, 2부 경기를 보면 절실함에 뛰는 선수들이다. 오히려 부천한테 고전할 수도 있다. 코리아컵은 일단 부천전이고 결승은 나중 문제다”라며 “너무 먼 곳까지 볼 필요 없이 오늘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쏟아야 한다. 회복하고 그다음 날 다시 쏘고 발전해 나가는 게 모든 선수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고 ‘오늘만’ 보면서 목표에 도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의 골키퍼 김경민이 광주축구전용구장 라커룸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A매치 휴식기를 보낸 광주FC가 18일 수원FC와의 원정경기를 통해 상위권 진입을 노린다. 베테랑 신창무(가운데)가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광주는 다양한 공격 루트로 수원FC를 공략할 전망이다.

광주FC, 공·수 밸런스로 연승 잇는다

오늘 수원FC와 K리그1 22라운드... 순위 끌어올리기 나서



재중전을 끝낸 광주FC가 수원FC로 가 순위 싸움에 시동을 건다.

A매치 휴식기를 보냈던 광주는 18일 오후 7시 30분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25 22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좋은 분위기를 이어 연승을 노린다.

최근 리그 3경기에서 광주는 2승 1무를 기록하고 있다. 정지훈의 프로 데뷔골로 제주SK FC를 1-0으로 꺾었던 광주는 대전하나시티즌과의 맞대결에서는 2골씩 주고받으면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어 앞선 FC안양과의 원정경기에서는 신창무와 아사히의 골로 2-1 승리를 거뒀다.

코리아컵까지 더하면 4경기 연속 무패다.

광주는 지난 2일 ‘우승후보’ 울산HD와의 코리아컵 4강전에서 조성권의 헤더로 1-0 승리를 거두면서 2년 연속 4강행을 확정했다.

좋은 흐름 속 천군 같은 재중전의 시간을 보낸 광주는 순위 끌어올리기에 나선다.

앞선 안양전에서 승점 3점을 더한 광주(8승 7무 6패·승점 31)는 3위 김천상무, 4위 포항스틸러스에 각각 승점 1점 뒤진 5위다. 2위 대전도 승점 4점 차 안에 있다.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광주의 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 물론 뒤에서 추격하고 있는 팀들도 만만치 않다.

광주보다 1경기를 덜 치른 울산이 ‘승점 30’으로 6위에 자리했다. 7위 FC서울(승점 30)과 8위 강원FC(승점 28)도 이번 라운드 성적에 따라서 순위를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광주는 좋은 공수 밸런스로 승점 사냥에 나선다. 아사히와 헤이스 두 외국인 선수의 여전한 움직임 속 ‘베테랑’ 신창무가 노련함을 발휘하면서 초반 부진을 털어냈다. ‘기대주’ 정지훈도 제주전에서 골맛을 보면서 불운 모임을 보여주고 있다.

수비진도 든든하다. 광주는 앞선 4경기에서 3실점만 하는 철벽 방어로 패배를 잊었다.

또 골키퍼 김경민이 안와골절 부상에서 회복해 지난 울산과의 코리아컵 경기를 통해 그라운드로 돌아왔다. 광주 수비의 핵심 변준수는 ‘홍명보호’에 승선해 동아시아컵을 통해 A매치 데뷔전을 치르는 등 국가대표 센터백으로 거듭났다.

무엇보다 숨 가쁘게 달려왔던 광주는 A매치 휴식기를 통해 체력을 다하고, 전술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광주가 수원 원정에서 리그 연승을 잇고 상위권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6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여자부 대한민국 대 대만 경기. 한국 정다빈이 패스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 여자축구 세대 교체 쉽지 않네

동아시아컵 여자부 우승... 지소연 등 베테랑 의존도 높아

신상우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은 20년 만의 동아시아 챔피언십(동아시아컵) 우승을 거뒀지만, 지소연과 헤이스 두 외국인 선수의 여전한 움직임 속 ‘베테랑’ 신창무가 노련함을 발휘하면서 초반 부진을 털어냈다. ‘기대주’ 정지훈도 제주전에서 골맛을 보면서 불운 모임을 보여주고 있다.

수비진에서도 중앙수비는 물론이고 때로는 측면 공격에까지 가담한 최고참 김혜리의 존재감이 어린 후배들을 압도하는 모습이었다.

지소연과 김혜리, 장슬기 등은 이제 언제 은퇴해도 이상할 게 없는 나이이다.

이들의 부담을 덜고 어린 주축 선수들을 새롭게 키워내야 한국 여자 축구는 국제대회에서 안정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

누구보다 답답해하는 ‘언니’들은 후배들이 자신을 넘볼 수준으로 실력을 키워 당당히 도전해 오기를 바란다.

대만전에서 선제 결승골을 페널티킥으로 넣은 지소연은 원래 페널티킥을 책임질 생각이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후배 중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프리킥 역시 지소연이 맡고 있다.

지소연은 “앞으로 페널티킥, 프리킥을 잘 키우려 후배가 더 나와줬으면 한다”면서도 “그런데 훈련 때 보니 딱히 잘 차는 선수가 없다”고 털어냈다.

후배 공격수들의 저조한 결정력에 대해서는 “이제 스무살 안팎의 어린 선수들이 좀 더 보완한다면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더 강하게 푸시(압박)해야 한다”면서 “개개인이 강해져야 대표팀도 강해진다. 다음 11월 A매치 때면 더 성숙한,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전에서 19세 정다빈(고려대)이 천군 같은 1-1 동점골을 넣으며 주목받았으나 대만전에서는 부족한 결정력을 노출했다. 훈련 기대주 케이시 유진 페어 역시 선발로는 대만전에만 나서서 45분만 뛰고 교체됐다.

수비진에서도 중앙수비는 물론이고 때로는 측면 공격에까지 가담한 최고참 김혜리의 존재감이 어린 후배들을 압도하는 모습이었다.

지소연과 김혜리, 장슬기 등은 이제 언제 은퇴해도 이상할 게 없는 나이이다.

이들의 부담을 덜고 어린 주축 선수들을 새롭게 키워내야 한국 여자 축구는 국제대회에서 안정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

누구보다 답답해하는 ‘언니’들은 후배들이 자신을 넘볼 수준으로 실력을 키워 당당히 도전해 오기를 바란다.

대만전에서 선제 결승골을 페널티킥으로 넣은 지소연은 원래 페널티킥을 책임질 생각이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후배 중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프리킥 역시 지소연이 맡고 있다.

지소연은 “앞으로 페널티킥, 프리킥을 잘 키우려 후배가 더 나와줬으면 한다”면서도 “그런데 훈련 때 보니 딱히 잘 차는 선수가 없다”고 털어냈다.

후배 공격수들의 저조한 결정력에 대해서는 “이제 스무살 안팎의 어린 선수들이 좀 더 보완한다면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더 강하게 푸시(압박)해야 한다”면서 “개개인이 강해져야 대표팀도 강해진다. 다음 11월 A매치 때면 더 성숙한,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전에서 19세 정다빈(고려대)이 천군 같은 1-1 동점골을 넣으며 주목받았으나 대만전에서는 부족한 결정력을 노출했다. 훈련 기대주 케이시 유진 페어 역시 선발로는 대만전에만 나서서 45분만 뛰고 교체됐다.

/연합뉴스